

Date

2022.08.30.

Contact

김웅

기업평가본부 책임연구원

02.2014.6218

woongkim@nicerating.com

정성훈

기업평가본부 실장

02.2014.6210

shjung@nicerating.co.kr

Contents

I. 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	2
II. 지배구조 분석	5
III. 사업분석	7
IV. 재무분석	10
V. 주요 계열사 등급변동 현황 및 향후 방향성	14
Appendix 1: KCC그룹 주요 계열사 등급현황 및 등급변동 검토요인	16
Appendix 2: KCC그룹 주요기업 사업 및 재무현황	18

KCC그룹분석

주요 사업부문 별 실적 개선. 남은 과제는 재무부담 완화

Summary

KCC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

- 전방업황 변화와 더불어 실리콘 등 주요 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세 유지 여부
- 그룹 내 핵심기업인 KCC의 재무부담 완화 여부
- 건설부문의 영업수익성 회복 여부
- KCC의 신용등급 변동여부에 따른 그룹 신용도 영향

그룹은 전자재/도로/실리콘, 건설, 판유리/자동차유리/상재/흙씨씨 등 다각화된 사업으로 사업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대부분의 사업영역에서 수위권의 시장지위로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제조업을 비롯한 전방수요 회복으로 실리콘사업을 포함해 그룹 내 주요 사업부문 전반적으로 매출규모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품 판가인상, 고정비 부담 감소가 나타나면서 원재료 단가 상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룹 핵심기업인 KCC와 KCC글라스 모두 영업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다만, KCC 건설의 경우에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건축공종의 예정원가율에 일시 반영되면서 2021년 수익성이 전년 대비 저하된 가운데, 원가부담은 2022년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러우크라 전쟁과 미중 분쟁 심화 등 대외변수로 인해 전방산업 내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로, 건설부문뿐만 아니라 그룹 영위사업 전반에 걸쳐 실적가변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재무적으로는 그룹 내 핵심기업인 KCC에서 차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2021년말 연결기준 KCC의 순차입금 규모는 3조 5,455억원(2020년 3조 404억원)이었으며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재고부담 지속, 고정자산 투자에 따른 자금소요로 2022년 6월말 기준 3조 8,83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사채발행이 없었던 KCC글라스에서도 2022년 1월 중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가운데, 자회사인 PT KCC Glass Indonesia에서 판유리 공장투자를 위해 자체 차입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룹의 2022년 6월말 순차입금이 3조 6,755억원(2021년말 3조 2,548억원)을 기록하면서 재무부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실리콘사업에서의 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KCC의 차입금 감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KCC글라스에서 신규 투자로 차입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룹차원에서의 재무부담의 감소 폭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I. 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

전방업황의 변화와 실리콘 등 주요 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세 유지 여부

2022년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점증으로 실리콘사업이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2022년은 러우크라 전쟁이 촉발한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각국의 금리인상과 소비둔화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룹의 경우, 해외판매 비중이 높은 실리콘사업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사업은 전방수요 회복과
판가인상으로 영업수익성 개선
세 시현 중

그룹 내 실리콘사업을 대표하는 모멘티브(KCC의 자회사)의 2021년 연결 매출액은 3조 1,224억원으로 그룹 전체 대비 37.1%(KCC매출 기준 5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멘티브는 글로벌 실리콘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환경과 업황저하로 2020년 이전까지 저조한 수익성을 시현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2020년 8월 초 Consumer sealants 사업부문 매각, 2021년 1월 중 KCC실리콘 및 Basildon을 모멘티브 산하로 편입)을 단행하였고 전방산업에서 위축되었던 수요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 영업손익에서 흑자전환을 이루어냈다. 2022년에 들어서도 견조한 전방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제품판가에 원활히 전가되면서 2022년 상반기 연결기준 EBIT/매출액이 11%를 기록하는 등 모멘티브의 영업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모멘티브 영업실적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1H	'22.1H
매출	26,363	29,795	17,238	24,397	31,203	15,695	19,157
영업손익	905	2,269	(-)4,63	(-)119	2,692	1,363	2,100
당기순손익	-	760	(-)5,55	(-)719	(-)181	691	1,177
EBIT/매출액	3.4	7.6	(-)26.9	(-)0.5	8.6	8.7	11.0
당기순이익률	-	2.6	(-)32.2	(-)2.9	(-)0.6	4.4	6.1

자료: KCC 제시자료 및 모멘티브/KCC 공시자료

주1: 2019년 모멘티브의 재무수치는 KCC의 자본취득일(2019.05.14) 이후 발생분에 해당함.

주2: 2020년 재무수치는 KCC실리콘과 Basildon 편입 전 수치에 해당

부정적인 글로벌 경기전망이 제
기되는 가운데, 실리콘사업의 실
적 개선세 유지 여부에 대한 불
확실성 증가

2021년 7월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는 이러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하여 모멘티브의 신용등급(Issuer Credit Rating)을 기존 B에서 B+(등급전망은 stable)로 상향하였고, 2022년 2월 중 등급전망을 Positive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와 관련한 시장의 예측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가운데, 실리콘사업에서의 실적 개선세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태이다.

2022년 상반기에 건설경기지표
저하로 건자재 사업환경도 불화
실성이 높아진 상황

그룹의 전통 주력분야인 건재자사업의 경우에 국내 비중이 절대적인 가운데, 인테리어 수요와 건축법 강화에 따른 단열재 판매량 호조는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2년 상반기 건설착공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조정이 동반되고 있다. 또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지표가 부진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건자재사업의 향후 실적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리콘 사업을 포함해 그룹의 주요 사업부문의 향후 실적 개선세 유지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룹 내 핵심기업인 KCC의 재무부담 완화 여부

모멘티브 인수 이후 그룹 재무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인수 주체인 KCC의 차입규모 축소 여부가 그룹의 재무부담 경감의 주요 요인

과거 모멘티브 인수에 수반된 차입으로 인해 증가한 KCC의 재무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6월말 연결기준 KCC의 총차입금(순차입금)은 5조 4,851억원(3조 8,838억원)으로 모멘티브 인수 전인 2018년말 1조 8,757억원(7,372억원)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KCC의 차입금 규모가 그룹 차입금 대비 92% 수준인 점을 감안 시, KCC의 차입규모 축소 여부가 그룹 재무부담 경감과 관련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KCC의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자산	89,654	93,822	123,476	128,789	139,330
부채	32,241	49,290	71,016	75,028	83,665
자본	57,413	44,532	52,460	53,761	55,666
총차입금	18,757	25,095	44,432	46,918	54,851
순차입금	7,372	16,558	30,404	35,455	38,838
부채비율	56.2	110.7	135.4	139.6	150.3
차입금의존도	20.9	26.7	36.0	36.4	39.4
순차입금의존도	8.2	17.6	24.6	27.5	27.9

자료: KCC 공시자료

주: 연결기준

그룹의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자산	99,342	104,214	150,429	158,318	171,543
부채	38,392	55,907	80,765	86,242	97,254
자본	60,950	48,307	69,664	72,076	74,290
총차입금	20,776	27,480	47,792	50,434	59,813
순차입금	7,248	15,703	25,996	32,548	36,755
부채비율	63.0	115.7	115.9	119.7	130.9
차입금의존도	20.9	26.4	31.8	31.9	34.9
순차입금의존도	7.3	15.1	17.3	20.6	21.4

자료: 각 사 공시자료

주: 주요 4개사 재무 단순합계 기준(KCC 연결, KCC건설/KCC글라스 개별기준)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을 통해 증가한 재무위험을 일정 부분 완화

높은 수준의 재무부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을 바탕으로 재무위험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다. KCC는 2022년 6월말 연결기준 약 1.6조원의 현금성자산과 더불어 삼성물산(주), 현대중공업(주) 등 약 2.4조원의 시장성 지분증권, 약 4.4조원의 유형자산(투자부동산 포함)을 보유 중이다.

KCC보유 지분증권 현황(장부가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6
시장성지분증권	29,756	25,896	24,425
비시장성지분증권	276	323	417
합계	30,032	26,219	24,842

자료: KCC 공시자료

건설부문의 영업수익성 회복 여부

사업안정성 양호하나,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전사 기준 영업수익성 저하 추세

KCC건설은 2022년 시공능력 순위 27위(2021년 32위)로 양호한 사업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약 3.69조원(미착공 사업장 포함 시 약 4.45조원)의 수주잔고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대체로 양호한 원가율에도 KCC건설은 2021년에 주택 외 일부 건축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예정원가에 일시 반영하면서 원가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 결과, 물가보상계약에 따른 보상액 수량으로 토목공종에서 수익성 개선을 시현하였음에도 전사기준 EBIT/매출액은 2020년 4.9%에서 2021년 2.3%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도 원가부담으로 인해 EBIT/매출액이 0.4%로 저하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그룹 내 매출비중 18% 내외 차지하는 KCC건설의 영업수익성 회복여부가 그룹 수익성 개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종별 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1H	'22.1H
건축	매출	9,356	7,216	11,852	8,205	11,397	4,642	7,660
	EBIT	596	330	348	500	81	252	-7
	EBIT/매출	6.4	4.6	2.9	6.1	0.7	5.4	-0.1
토목	매출	2,640	2,240	2,280	2,063	2,153	997	883
	EBIT	3	2	37	73	235	104	38
	EBIT/매출	0.1	0.1	1.6	3.5	10.9	10.4	4.3
분양	매출	1,268	1,181	2,293	748	90	8	135
	EBIT	119	146	203	-30	2	1	3
	EBIT/매출	9.4	12.3	8.8	-4.0	2.7	9.7	2.1
합계	매출	13,264	10,636	16,425	11,016	13,640	5,648	8,678
	EBIT	719	478	588	543	319	357	34
	EBIT/매출	5.4	4.5	3.6	4.9	2.3	6.3	0.4

자료: KCC건설 공시자료

주: 증감액에는 신규수주/수주취소 및 계약금액 변경 등 포함

KCC의 신용등급 변동 여부에 따른 그룹 신용도 영향

그룹의 핵심기업인 KCC의 등급 변동 여부가 그룹의 신용도 결정 요인으로 작용

주요 계열사의 그룹 내 매출과 이익기여도, 신용등급 수준을 고려할 때, 그룹 신용도를 결정하는 핵심기업은 KCC이다. 다만, 그룹 내 가장 높은 신용등급으로 그룹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는 KCC가 모멘티브 인수에 따른 재무안정성 저하와 모멘티브의 저조한 영업수익성 등에 기인하여 2020년 5월 중 등급이 하향(AA/N → AA-/S)되었다. 그 결과, 그룹의 신용등급도 동반 하향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향후 KCC의 재무부담의 완화 여부 및 실리콘사업에서 개선된 영업실적의 지속 여부, 이에 따른 KCC의 신용등급 회복 여부가 그룹 신용도 변동에 주요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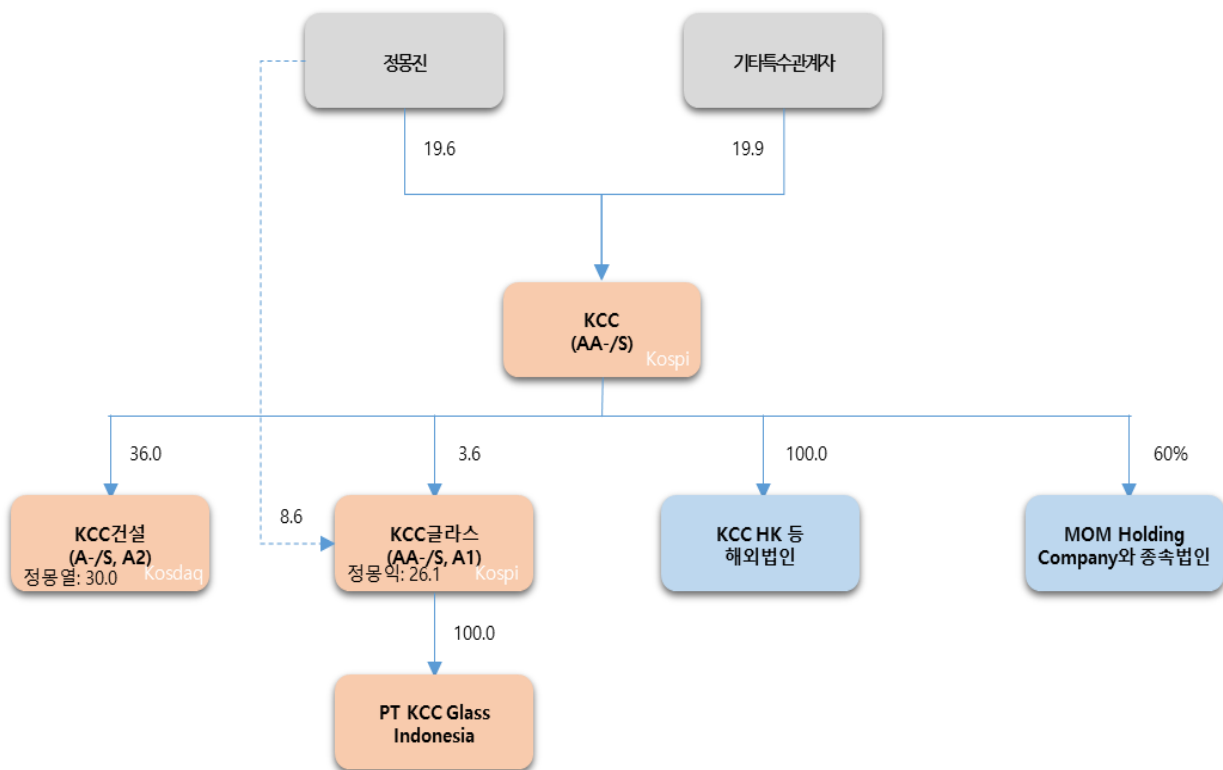
II. 지배구조 분석

KCC그룹은 정몽진 KCC회장 등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KCC그룹은 KCC, KCC글라스, KCC건설 주요 3개 계열사로 구성되며, 주요 계열사였던 구 코리아오토글라스는 2020년 12월 1일자로 KCC글라스에 흡수합병되었다. 정몽진, 정몽익, 정몽열 3형제가 주요 주주로, 정몽진 KCC 회장은 KCC의 지분 19.6% 및 KCC글라스 지분 8.6%,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은 KCC글라스 지분 26.1%, KCC의 지분 8.5%를, 정몽열 KCC건설 대표이사는 KCC건설 지분 30.0%, KCC의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그룹의 핵심회사인 KCC가 KCC건설 지분 36.0%를 보유하고 있어 그룹 경영권은 정몽진 KCC회장 등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KCC그룹 지배구조

단위: %



자료: 각사 공시자료(2022년 6월말 기준)

일부 F이탈,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모멘티브에 대한 KCC의 지분
율은 60%로 상승

KCC는 2019년 5월 SPC설립을 통해 미국 소재 글로벌 실리콘 회사인 모멘티브의 지분 45.5%를 취득하였으며, 2020년 1월 중 MOM Holding Company(모멘티브)의 3대 주주인 MOMQ Holding Company가 모멘티브의 퀴츠부문 인수와 동시에 보유 중이던 9%의 지분을 유상감자하였다. 이에 따라, 모멘티브에 대한 KCC의 지분이 50%+1주(기준 45.5%)로 상승하면서 2020년 1분기부터 모멘티브가 KCC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또한, KCC는 2020년 12월 1일자로 실리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2021년 1월 중 자회사인 Basildon과 함께 모멘티브 산하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모멘티브에 대한 KCC의 지분율은 60%로 증가하였다.

한편, KCC는 2020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유리/상재/흙씨씨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통해 KCC글라스를 신설하였다. 분할 이후 존속회사인 KCC는 KCC-HK 등 종속기업 5개사(MOM Holding Company 포함)와 KCC건설 등 관계기업/공동기업 3개사(2020년 상반기 신규 추가된 Zhenjiang Xinan MPM 제외)의 지분 그리고 신설회사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KCC글라스는 구 코리아오토글라스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KCC글라스는 차량 안전유리 및 파일사업을 영위하는 코리아오토글라스를 흡수합병. 이후 최대 주주는 정몽익 회장이며, 인도네시아 투자를 위해 신규 자회사 설립

KCC글라스는 2020년 9월 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0년 1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구 코리아오토글라스를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후 KCC글라스는 존속하고 구 코리아오토글라스는 소멸하였으며, 합병을 통해 구 코리아오토글라스의 정몽익 회장이 KCC글라스의 최대주주(기존 KCC글라스의 최대주주는 KCC의 정몽진 회장)가 되었다. KCC글라스는 구 코리아오토글라스의 자동차용 유리 제품에 필요한 판유리를 공급해오는 등 양사 간 사업적 긴밀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에 동 합병을 통해 KCC글라스의 사업효율성 개선 및 그룹 내 사업적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KCC글라스는 인도네시아에 판유리 공장 설립을 위해 2021년 4분기 중 자회사(PT KCC Glass Indonesia)를 설립하였으며, 동 법인의 신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향후 추가 출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II. 사업분석

금번 보고서의 사업 및 재무 분석은 2022년 6월말 기준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KCC그룹의 사업분석을 위해 사업부문을 건자재·도로·실리콘, 건설, 판유리·차량유리·상재·흙씨씨 외로 구분하였다. 건자재·도로·실리콘 사업부문은 KCC, 건설 사업부문은 KCC건설, 판유리·차량유리·상재·흙씨씨 외 사업부문은 KCC글라스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재무분석은 작성여부를 고려하여 그룹의 사업부문별 연결 혹은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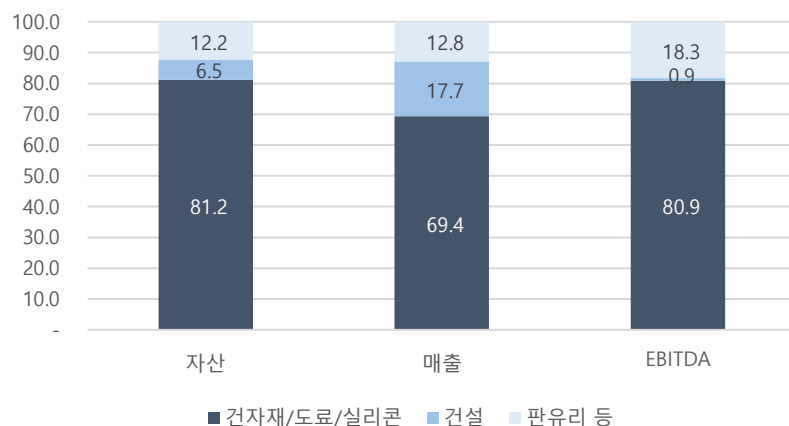
구분(개수)	계열사
건자재/도로/실리콘(1)	KCC
건설(1)	KCC건설
판유리/차량유리/상재/흙씨씨 외(1)	KCC글라스

KCC그룹은 건자재/도로/실리콘, 건설, 판유리/차량유리/상재/흙씨씨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그룹은 판유리, PVC, 도로 등 건축 및 산업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2020년 중 글로벌 실리콘 기업인 모멘티브 인수로 실리콘 부문의 급성장이 이루어졌다. 2022년 상반기 회사별 합산 기준 KCC가 영위하는 건자재/도로/실리콘 사업이 전체 매출의 69.4%, KCC건설이 영위하는 건설사업이 17.7%, KCC글라스가 영위하는 판유리 등 사업이 18.3%의 매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KCC의 사업구성을 살펴보면, 실리콘사업이 56.5%로 모멘티브 인수효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사업이 22.0%, 건자재사업이 15.7%의 매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외, 기타부문의 매출비중은 5.8%로 나타난다.

사업부문별 비중(2022년 상반기)

단위: %



자료: 각 사 공시자료, NICE신용평가 가공

주: 판유리 등에는 자동차 안전유리 포함

KCC그룹 사업부문별 영업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1H	'22.1H
건자재, 도로, 실리콘	매출액	38,640	37,822	27,196	50,836	58,749	28,752	33,935
	EBIT	3,298	2,435	1,332	1,338	3,888	1,943	3,136
	EBIT/매출액	8.5	6.4	4.9	2.6	6.6	6.8	9.2
건설	매출액	13,264	10,636	16,425	11,016	13,640	5,648	8,678
	EBIT	719	477	588	543	319	357	34
	EBIT/매출액	5.4	4.5	3.6	4.9	2.3	6.3	0.4
판유리 등	매출액				7,087	11,757	5,880	6,281
	EBIT		N/A		358	1,608	853	692
	EBIT/매출액				5.1	13.7	14.5	11.0
자동차유리 등 (구 코리아오 토글라스)	매출액	4,448	4,387	4,560				
	EBIT	525	498	575	N/A		N/A	
	EBIT/매출액	11.8	11.3	12.6				
합계	매출액	56,352	52,845	48,181	68,939	84,146	40,280	48,894
	EBIT	4,542	3,410	2,495	2,239	5,815	3,153	3,862
	EBIT/매출액	8.1	6.5	5.2	3.2	6.9	7.8	7.9

자료: 각 사 공시자료

주: 건자재/도로/실리콘(연결기준), 건설(개별기준), 판유리 등(별도기준), 자동차유리 등(개별기준)

[건자재, 도로, 실리콘 사업부문 - KCC]

건자재/도로/실리콘 사업부문은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사업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

그룹의 핵심기업인 KCC는 국내 수위의 건축자재 회사로, 석고보드·PVC 등의 건자재 사업, 선박·자동차용 등의 도로 사업, 실리콘 사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수요산업이 조선, 자동차, 건설 등에 분산되어 있어 일부 수요산업의 경기 등락에도 전체적인 사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에서 선도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사업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2021년 들어 영업실적 회복하였으나, 2022년에 대외변수로
인해 실적가변성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었던 해외도로 사업에서는 2021년 들어 중국 내 컨테이너 수요 증가, 인프라설비 투자 증가 등에 기반하여 제품판매가 인상과 매출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에, SOLVENT, XYLENE 등 원재료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실리콘사업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던 북미, 유럽 등지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제조업 수요회복 등으로 사업환경이 개선되었다. 건자재사업의 경우, 2021년에 착공물량 증가 및 공정률 상승, 인테리어 수요증가로 석고보드, PVC창호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건축법 강화와 맞물려 화재 안정성이 높은 단열재 소재인 그라스울, 세라크울의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대외 변수에 따른 유가 및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했던 국내 도로부문을 제외하면, 수요증가에 비례한 판가인상, 외형 확대에 기반한 고정비 부담 감소로 사업부문 전반적으로 EBIT마진율이 개선되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실리콘사업의 실적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전사기준 영업실적도 개선되었다. 다만, 글로벌 경기의 하방압력과 국내 건설경기지표가 저하되면서 향후 KCC의 실적가변성이 다소 증가한 상태이다.

[건설 사업부문 - KCC건설]

분양률이 저조한 일부 현장 및
추후 영업수익성 회복여부에 대
한 모니터링 필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KCC건설은 2022년 시공능력 순위 27위(2021년 32위)로 양호한 사업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종별 다변화 및 계열공사 병행 등을 통해 사업기반도 양호한 수준이다. KCC건설은 2021년말 기준 약 3.69조원(미착공 사업장 포함 시 약 4.45조원)의 수주잔고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KCC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주택도급사업에서 분양률이 대체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버밀리언 남산 오피스텔(도급액 508억원) 등 일부 현장의 분양률은 다소 부진한 수준이다.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주택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분양률 개선 추이와 예정사업장의 분양성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2021년에 KCC건설이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대체로 양호한 원가율을 나타냈으나, 주택 외 일부 건축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예정원가에 일시 반영하며 원가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토목현장에서 물가보상계약에 따른 보상액이 정산과정에서 반영되면서 토목부문의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전사기준 EBIT/매출액은 2020년 4.9%에서 2021년 2.3%로 절반 수준 이상 감소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도 원가부담으로 인해 EBIT/매출액이 0.4%를 기록하며 저하된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KCC건설의 영업수익성 회복여부와 관련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판유리, 차량유리, 상재, 흙씨 외 사업부문 - KCC글라스]

우수한 시장지위에 기반해 실적
성장세 시현 중이나, 대외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향후 실
적에 우려 요인

KCC글라스는 판유리(건축용 및 차량용), 자동차용 안전유리 부문에서 업계 최상위권의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유리시장의 경우, 원판(판유리) 생산업체는 KCC글라스와 한국유리공업이 양강구도를 유지하며 다수의 중소형 가공업체가 산재한 가운데, 2022년 6월말 기준 국내 건축용 판유리 및 코팅유리 부문에서 KCC글라스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 안전유리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국내 시장에서 한국세큐리트와 북점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 중심의 OEM납품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70% 내외를 가져가며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들어 코로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수요회복, 지연되었던 건설현장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전방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사업부문 전반적으로 외형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시현하였다. 특히,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유리수요 증가와 해운물류 대란에 따른 운송비 증가, 국내 생산공장 내 트러블 및 정기보수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판유리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력사업인 유리부문에서 실적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 들어 금리인상, 러·우크라 전쟁 등 대외변수로 인한 전방산업 내 불확실성 증가는 KCC글라스의 실적가변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V. 재무분석

EBITDA규모 확대로 채무상환
능력 제고되고 있으며, 풍부한
보유자산에 기반해 유사 시 재
무대응력 우수

주요 계열사 합산 기준 2022년 6월말 총자산은 17조 1,543억원,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
존도는 각각 130.9%, 34.9%로 2019년 상반기 중 모멘티브 인수 이후 그룹 전반의 재무
안정성은 인수 전과 비교하여 저하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룹은 실리콘 등 주
요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EBITDA규모 확대로 채무상환능력이 제고되고 있다. 또
한, 상장지분 등 풍부한 보유 자산에 기반해 유사 시 재무적 대응력이 우수한 수준이다.

KCC그룹 사업부문별 재무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
건자재, 도료, 실리콘	자산총계	95,438	89,654	93,822	123,476	128,789	139,330
	자본총계	58,663	57,413	44,532	52,460	53,761	55,666
	총차입금	22,486	18,757	25,095	44,432	46,918	54,851
	순차입금	14,251	7,372	16,558	30,404	35,455	38,838
	EBITDA	5,522	4,930	3,778	5,597	8,023	5,134
	CAPEX	4,180	2,345	3,484	2,202	2,234	1,567
	부채비율	62.7	56.2	110.7	135.4	139.6	150.3
	차입금의존도	23.6	20.9	26.8	36.0	36.4	39.4
	총차입금/EBITDA(배)	4.1	3.8	6.6	7.9	5.8	5.3
	순차입금/EBITDA(배)	2.6	1.5	4.4	5.4	4.4	3.8
건설	자산총계	9,421	9,692	10,392	9,775	10,898	11,230
	자본총계	3,381	3,536	3,775	4,005	4,425	4,450
	총차입금	2,096	2,019	2,385	2,231	1,917	1,863
	순차입금	-372	-125	-855	-1,729	-675	-696
	EBITDA	737	493	614	574	359	55
	CAPEX	7	5	8	1,440	15	9
	부채비율	178.6	174.1	175.3	144.1	146.3	152.4
	차입금의존도	22.3	20.8	23.0	22.8	17.6	16.6
	총차입금/EBITDA(배)	2.8	4.1	3.9	3.9	5.3	16.9
	순차입금/EBITDA(배)	-0.5	-0.3	-1.4	-3.0	-1.9	-6.3
판유리, 상재, 흙 씨씨	자산총계	N/A			17,178	18,631	20,983
	자본총계				13,199	13,890	14,174
	총차입금				1,129	1,599	3,098
	순차입금				-2,679	-2,232	-1,387
	EBITDA				1,120	2,558	1,160
	CAPEX				635	1,173	184
	부채비율				30.2	34.1	48.0
	차입금의존도				6.6	8.6	14.8
	총차입금/EBITDA(배)				1.0	0.6	1.3
	순차입금/EBITDA(배)				-2.4	-0.9	-0.6

KCC그룹 사업부문별 재무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
자동차 유리 등 (구 코리 아오토글 라스)	자산총계	5,238	5,643	4,979			
	자본총계	3,182	3,450	3,609			
	총차입금	800	800	16			
	순차입금	-317	-638	-1,053			
	EBITDA	780	759	818			
	CAPEX	189	222	123		N/A	
	부채비율	64.6	63.6	38.0			
	차입금의존도	15.3	14.2	0.3			
	총차입금/EBITDA(배)	1.0	1.1	0.0			
	순차입금/EBITDA(배)	-0.4	-0.8	-1.3			
합계	자산총계	110,097	104,989	109,193	150,429	158,318	171,543
	자본총계	65,226	64,400	51,916	69,664	72,076	74,290
	총차입금	25,382	21,576	27,496	47,792	50,434	59,813
	순차입금	13,561	6,608	14,650	25,996	32,548	36,755
	EBITDA	7,040	6,182	5,210	7,291	10,940	6,349
	CAPEX	4,376	2,572	3,615	4,277	3,422	1,761
	부채비율	68.8	63.0	110.3	116.0	119.7	130.9
	차입금의존도	23.1	20.6	25.2	31.8	31.9	34.9
	총차입금/EBITDA(배)	3.6	3.5	2.6	6.6	4.6	4.7
	순차입금/EBITDA(배)	1.9	1.1	1.4	3.6	3.0	2.9

자료: 각 사 공사자료

주: 건자재/도로/실리콘 1개사(KCC 연결), 건설 1개사(KCC건설 개별), 판유리 등 1개사(KCC글라스 별도), 자동차유리 1개사(구 코리아오토글라스 개별)

[건자재/도로/실리콘 부문 - KCC]

실리콘 부문의 EBITDA창출력 개선세 이어지고 있으나, 투자부담 등으로 유의적인 재무부담 완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2021년에 실리콘사업에서 창출한 연결기준 EBITDA규모는 약 4,900억원 내외로, 2020년 약 2,3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사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2% 에서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실리콘사업에서의 EBITDA창출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지급, 수요회복 과정에서 재고투자 증가, 경상투자 부담으로 2021년 KCC의 잉여현금흐름은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2년에 들어서는 원재료가격 상승 영향에 따른 재고부담 증가, 그라스울을 비롯해 건자재사업에서의 신규 투자 확대에 의한 자금부담 등이 KCC의 잉여현금창출에 있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인수 전 450.8%의 열위한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던 모멘티브가 2021년부터 KCC의 연결실적에 반영됨에 따라, KCC의 차입금 규모가 인수 이전 대비 2배 내외로 증가하였다. 2021년 중 운전자금 부담 증가와 더불어 엠오엠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LP지분 매입(3,800억원 내외)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지속되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재고부담과 고정자산 투자가 이어지며 2022년 6월말 기준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의 차입금 감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건설 부문 - KCC건설]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PF우발채무의 현실화 위험과 관련한 모니터링 필요

2021년에 들어 공사미수금 증가 등 운전자금 부담으로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였다. 다만, 2022년에는 미청구공사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12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약 2,500억원의 수금이 이루어지는 등 향후 기성청구 및 채권회수는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행 및 계획 중인 자체사업이 없어 당분간 선투입 자금 부담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2021년말 기준 KCC건설의 부채비율과 순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46.3%, (-)6.2%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양호한 수준이다. KCC건설은 2014년 이후 계열의 재무적 지원(유상증자, 유형자산·투자부동산 매입)과 자체적인 운전자금 회수 노력을 통해 차입금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기반해 낮은 차입부담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KCC건설의 자본규모(2021년말 4,425억원) 대비 민간개발사업 관련 PF우발채무 잔액(2021년말 기준 1,468억원)은 과다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개발사업 중 PF 잔액 규모가 큰 영광대마산업단지(PF우발채무 282억원), 전주부대이전(PF우발채무 214억원) 등의 현실화 가정 시 현금유출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분양물량이 과다한 대구지역 사업(대구동인동주상복합, 100억원) 등이 포함되며, 향후 동 사업장에서의 운영실적 및 PF상환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외, 청라골프장 사업관련 재무투자자(아라베스크(유))에게 제공된 풋옵션(행사가액 307억원으로 선급비용 65억원을 제외한 242억원이 파생상품부채로 설정되어 있음)의 실행여부도 모니터링 요인이다.

[판유리, 자동차유리, 상재, 흙씨씨 외 사업부문 - KCC글라스]

준수한 수준의 EBITDA창출 중이며 재무안정성이 우수한 수준

2021년에는 바닥재 관련 설비투자, 흙씨씨 매장확대 등으로 KCC글라스의 별도기준 CAPEX 규모가 약 1,1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58억원 규모의 EBITDA를 바탕으로 1,000억원을 상회하는 잉여현금이 창출되었다. 2022년 이후 경성투자를 포함해 별도기준으로 연간 500~600억원 내외의 CAPEX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준수한 수준의 EBITDA창출력과 제한적인 규모의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당분간 양호한 수준의 잉여현금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자회사인 PT KCC Glass Indonesia에 대해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가 예상되고 동사에서 계획 중인 판유리공장(예상 생산능력은 연간 43만 8천톤 수준으로 여주공장 생산능력의 약 46% 수준) 투자가 본격화되면 연결법인 차원에서는 일시적으로 잉여현금창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

舊 코리아오토글라스 흡수합병 이후 자본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21년말까지 부채비율 30% 초반대를 시현하고 무차입기조를 유지하는 등 KCC글라스는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시현하였다. 2022년 초에 운영자금, 채무상환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과 단기사채 발행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나, 현금성자산이 차입금을 상회하며 여전히 무차입기조를 유지 중이다. 또한, 풍부한 자본원충력에 기반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자회사인 PT KCC Glass Indonesia에서 판유리 공장투자를 위한 차입계획과 관련해 자금조달규모와 조달방법에 대해 모니터링 예정이다.

[계열사 간 보증현황]

자회사를 비롯한 관계/공동 기업
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중이나,
주요 3사 간 신용공여 내역은 없
음

계열사간 주요 지급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KCC가 공동기업인 PTC에 1억 5,465만 USD, 종속기업인 MPM Holdings Inc.에 8억 3,900만 USD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 KCC건설은 관계사인 미래에 113억원의 자금제공, 블루아일랜드개발에 보증한도 40억원 (차입금잔액 14억원)의 차입금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2022년 6월말 기준 그 룹 내 주요 3사(KCC, KCC건설, KCC글라스) 간 신용공여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계열사 지급보증 제공현황

단위: 억원, %

사업부문	회사명	보증제공액	자기자본	보증/자기자본
건자재, 도료, 실리콘	KCC	12,847	55,666	23.1
건설	KCC건설	127	4,450	2.9
판유리/차량유리, 상재, 흙씨씨 외	KCC글라스	-	14,174	-

자료: 각 사 공시자료, NICE신용평가 재가공

주1: 2022년 6월말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 보증제공 현황

주2: 우리사주취득 자금대출 명목으로 연대보증이 제공된 내역은 미포함

한편, KCC글라스는 2022년 8월 24일에 자회사인 PT KCC Glass Indonesia에 대한 지급보 증 제공과 관련해 공시하였으며, 보증금액은 1,208억원이다. 동 채무보증은 해당자회사의 판유리 공장 신설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채권자는 신한은행(USD 60,000,000) 및 하나은행 (USD 30,000,000)으로 파악된다.

V. 주요 계열사 등급변동 현황 및 향후 방향성

2020년 상반기 중 그룹 핵심계열사인 KCC의 등급이 AA-/Negative에서 AA-/Stable로 하향된 이후 2022년 8월 중순 현재까지 등급 및 전망변동은 없다. KCC글라스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중 이루어진 회사채 신규 평가를 통해 KCC의 장기등급과 동일한 AA-/Stable을 최초로 부여하였고, 단기등급은 A1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KCC건설의 장기등급은 A-/S, 단기등급은 A2로 역시 직전등급 대비 변동사항은 없다.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변동 현황

기업명	업종	장기신용등급		단기신용등급	
		직전등급	2022.08	직전등급	2022.08
KCC	건자재, 화학제품	AA-/S	AA-/S	A1	A1
KCC글라스	유리제조 등	AA-/S	AA-/S	A1	A1
KCC건설	건설	A-/S	A-/S	A2	A2

주1: 2022년 8월말 현재 NICE신용평가(주) 보유 유효등급 기준

주2: ※표기는 연대보증 또는 권면보증 채권의 등급을 나타냄.

KCC의 경우, 시장 내 우수한 경쟁지위, 모멘티브의 다변화된 생산거점 등을 바탕으로 공급망 이슈에 따른 원재료 공급부족 및 가격상승 부담 등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멘티브의 개선된 영업수익성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사차원의 연결기준 영업수익성은 우수한 수준을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예측이 부정적인 가운데, 모멘티브의 실적 개선세 유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재무적으로는 당분간 모멘티브의 대규모 증설투자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나, 운전자금 부담 증가와 더불어 2022년 중 그라스올 생산설비 투자 등 신규 투자규모를 감안 시 단기간 내 재무부담의 유의적인 완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모멘티브의 개선된 실적 유지 여부와 재무부담 완화 추이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등급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KCC건설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도급건축·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수주로 최근까지 공사잔고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분간 매출액 1조원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에서 외형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행 중인 주택사업에서의 분양률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최근 자재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예정사업장에서의 원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원가율 상승과 영업수익성 하락, 이에 따른 재무부담 증가 등으로 KCC건설의 실적 저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 추이와 KCC건설의 사업장 별 도급액 협상력, 이에 따른 KCC건설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 저하 폭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KCC글라스의 경우, 인테리어 관심도 증가, 노후주택 증가로 건축용유리, 인테리어부문에서 외형 성장가능성은 인정된다. 다만, 원재료 가격상승에 기인한 판매가격 상승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주택매매거래량이 2019년 초 수준으로 낮아진 점은 인테리어부문 등에서의 매출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차량용 안전유리에서는 공급망 불안정의 영향으로 완성차 생산제약이 지속되며 당분간 매출규모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2022년 이후 KCC글라스의 연 평균 매출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판유리 가격상승, 안전유리의 우수한 마진율, 2022년 초 원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구 코마글로벌 흡수합병을 통한 원가부담 완화 등으로 당분간 우수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대외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전사기준 10% 초반대 내외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적으로는, 2022년 이후에도 경성투자를 포함해 연간 500~600억원 내외의 CAPEX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2,500억원 내외의 EBITDA와 제한적인 수준의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당분간 양호한 수준의 잉여현금창출과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회사인 PT KCC Glass Indonesia에서 계획 중인 판유리공장 투자와 관련해 향후 자금조달규모와 자금조달방법, 동사에 대한 추가 출자규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Appendix 1: KCC그룹 주요 계열사 등급현황 및 등급변동 검토요인

KCC그룹 주요 계열사 등급현황

기업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KCC	장기	AA/S	AA/S	AA/S	AA/N	AA-/S	AA-/S	AA-/S
	단기	A1	A1	-	A1	A1	A1	A1
KCC건설	장기	A-/S	A-/S	A-/S	A-/S	A-/S	A-/S	A-/S
	단기	A2	A2	A2	A2	A2	A2	A2
KCC글라스	장기	-	-	-	-	AA-/S(보중)	AA-/S(보중)	AA-/S, AA-/S(보중)
	단기	-	-	-	-	-	A1	A1
구 코리아오토글라스	장기	-	-	-	-	-	-	-
	단기	A1	-	-	A1	-	-	-

주1: 2022년 등급은 2022년 8월말 NICE신용평가(주) 보유 유효등급 기준임.

주2: 등급전망(Outlook)은 P(Positive: 긍정적), S(Stable: 안정적), N(Negative: 부정적), D(Developing: 유동적)으로 구분됨.

주3: 등급감시(Watch)는 상향검토(↑), 하향검토(↓), 불확실검토(◆)로 구분됨.

주4: KCC글라스이 장기등급은 KCC의 연대보증이 제공된 회사채 등급임

주5: 구 코리아오토글라스의 단기등급은 KCC글라스에 흡수합병되면서 2020년 12월 1일에 소멸

KCC그룹 주요 계열사 등급변동 검토요인

기업명	신용등급	재무제표	구분	등급변동 검토요인
KCC	AA-/S, A1	연결	상향조정 검토	▪ 건자재, 해외 도로 등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회복되고, 모멘티브의 양호한 실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 EBIT/매출 4% 이상, 총차입금/EBITDA 5배 이하 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 비영업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대된 재무부담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하향조정 검토	▪ 건자재, 도로 등 영위사업의 전방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 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인한 영업이익창출력 저하와 모멘티브의 저조한 실적이 지속되어 ▪ EBIT/매출 2% 미만, 총차입금/EBITDA 8배 초과 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경우
KCC건설	A-/S, A2	개별	상향조정 검토	▪ 원가율 개선 및 추가원가 발생 방지를 통한 영업현금창출력 개선, PF우발채무 축소 등을 통해 ▪ EBITDA/매출액 5% 이상 & PF우발채무 및 차입금 부담 완화 등 ▪ 전반적인 사업재무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향조정 검토	▪ 원가율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은 가운데, ▪ 운전자금 부담, PF우발채무 현실화 등에 따라 ▪ 부채비율 300% 이상 등 ▪ 재차 재무안정성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
KCC글라스	AA-/S, A1	개별	상향조정 검토	▪ 사업부문별 고른 이익기여도를 통해 사업다각화 수준이 제고되는 가운데, ▪ 차별화된 기술개발 또는 계열물량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의 안정성이 현 수준 대비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하향조정 검토	▪ 전방산업인 건설, 완성차 시장의 업황부진으로 인해 영업수익성 및 현금창출력의 유의적인 저하가 나타나거나 ▪ 신규투자 증가 등으로 재무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경우

주1: 최근 유효등급 공시 건 기준

주2: 등급 변동 검토는 상기 요인·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됨.

Appendix 2: KCC그룹 주요기업 사업 및 재무현황

KCC그룹 주요기업 사업 및 재무현황

단위: 억원, %, 배

구분	연도	총자산	총차입금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EBIT	EBITDA	EBIT/ 매출액	EBITDA/ 금융비용	총차입금/ EBITDA	영업 현금흐름	잉여 현금흐름
KCC (연결)	2016	91,624	20,005	53.6	21.8	34,905	3,266	5,299	9.4	11.0	3.8	4,017	1,117
	2017	95,438	22,486	62.7	23.6	38,640	3,298	5,522	8.5	10.4	4.1	3,060	-1,119
	2018	89,654	18,757	56.2	20.9	30,810	2,009	4,504	6.5	7.7	4.2	5,506	3,161
	2019	93,822	25,095	110.7	26.8	27,196	1,332	3,778	4.9	6.1	6.6	2,749	-735
	2020	123,476	44,432	135.4	36.0	50,836	1,338	5,597	2.6	3.5	7.9	5,799	3,597
	2021	128,789	46,918	139.6	36.4	58,749	3,888	8,023	6.6	5.6	5.8	3,195	961
	2021.6	135,964	50,899	139.4	37.4	28,752	1,943	3,933	6.8	6.0	6.5	852	191
	2022.6	139,330	54,851	150.3	39.4	33,935	3,136	5,134	9.2	6.3	5.3	-423	-1,991
KCC건설 (개별)	2016	9,024	2,483	190.9	27.5	11,207	352	374	3.1	4.7	6.6	-3	-17
	2017	9,417	2,096	178.4	22.3	13,264	719	737	5.4	18.6	2.8	966	959
	2018	9,688	2,019	173.9	20.8	10,636	477	493	4.5	12.5	4.1	-266	-270
	2019	10,392	2,385	175.3	23.0	16,425	588	614	3.6	10.1	3.9	898	890
	2020	9,775	2,231	144.1	22.8	11,016	543	574	4.9	6.9	3.9	2,074	633
	2021	10,898	1,917	146.3	17.6	13,640	319	359	2.3	5.2	5.3	-1,121	-1,136
	2021.6	11,267	2,349	161.5	20.8	5,648	357	375	6.3	11.1	3.1	513	506
	2022.6	11,230	1,863	152.4	16.6	8,678	34	55	0.4	1.8	16.9	69	60
KCC글라스 (별도)	2020	17,178	1,129	30.2	6.6	7,087	358	1,120	5.1	34.9	1.0	1,104	469
	2021	18,631	1,599	34.1	8.6	11,757	1,608	2,558	13.7	75.0	0.6	2,268	1,095
	2021.6	17,960	1,626	33.8	9.1	5,880	853	1,335	14.5	82.6	0.6	1,266	391
	2022.6	20,983	3,098	48.0	14.8	6,281	692	1,160	11.0	26.6	1.3	290	107
구 코리아오토 글라스 (개별)	2016	4,600	620	64.8	13.5	4,388	468	713	10.7	336.0	0.9	451	368
	2017	5,238	800	64.6	15.3	4,448	525	780	11.8	103.9	1.0	1,028	839
	2018	5,643	800	63.6	14.2	4,387	498	759	11.4	58.6	1.1	585	363
	2019	4,979	16	38.0	0.3	4,560	575	818	12.6	237.5	0.0	712	589
	2020.9	5,086	14	33.8	0.3	3,216	433	601	13.5	2,806.3	0.0	434	306

자료: 각 사 공시자료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주)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류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자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제3자 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시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